

##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

여형범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1. 미세먼지 문제는 대기, 건강, 에너지 부문의 정책 변화를 위한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을 열고 있음. 기회의 창을 어떻게 활용하여 정책 변화를 이끌고 확장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함.

- 충남 서해안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된 것에는, 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인한 전력원 다변화(석유 중심에서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등으로 변화),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 악화에 대한 대응(수도권 외, 대도시 지역 외 지역 중 석탄 수입 및 저장, 냉각수 이용 및 배출이 유리한 지역에 석탄화력발전 건설)이 결합되었을 것임.
- 1970년대 이후 전력시스템의 경로는 1970년대 이전 전력시스템의 경로와 달랐음. 1970년대 중반에 열린 기회의 창. 2030년의 전력시스템은 현재의 전력시스템의 경로와 다를 수 있을까?

2.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부문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환경, 건강, 에너지 분야에서 함께 논의해야 함.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환경 오염과 건강 피해, 전력수급의 변화,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압박 등)이 얹여 있는 문제임.

-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과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시군별 에너지 생산-소비, 온실가스 배출은 어느 정도인가? 기존 데이터는 충분하고 정확한가?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 석탄화력발전 부문은 다른 분야(제조업, 교통 등)에 비해 효과적, 효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가?
-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법은 다양할 것인데,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기술 적용, 발전량 통제, 발전소 폐쇄 등 어느 수준의 대안 적용이 필요할까?

3. 결국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연관될 것임. 비용 문제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함.

- 정책 변화를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까?
- 현재 비용부담 구조는 어떠한가,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가? (전력요금, 지역자원시설세, 전력산업기반기금, 배출부과금 등)
- 각 비용부담 주체들은 비용부담 증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 비용부담 구조의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